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에, 책임귀인이 연애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우 성 범 정 미 나 성 낙 윤 강 총 명 양 은 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연애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에, 그리고 책임귀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대의 대학생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연애경험이 있는 138명의 자료만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자기에성 척도, 책임귀인 척도, 연애관계 만족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AMOS 16.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주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에 대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미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에에, 자기에가 책임귀인에, 그리고 책임귀인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초한 자기에는 연애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성격적 요인이며, 특히 수치심에 기초한 자기에 성향의 영향은 책임귀인이라는 인지적 기체를 통해 매개되는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상담과정에 가지는 함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에, 책임귀인, 관계 만족

* 교신저자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 yange@korea.ac.kr

성공적인 연애관계의 형성과 지속은 청년기의 주요한 적응지표로서,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및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Simon & Marcussen, 1999; Weiss & Heyman, 1997; Wickrama, Lorenz, Conger, & Elder, 1997). 연애관계와 부부관계의 낮은 만족도는 우울(Fincham, Beach, Harold, Osborne, 1997), 알코올남용(Jacob & Krahn, 1998), 공격성(Capaldi & Crosby, 1997)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애관계와 부부관계 문제는 주요 호소문제 영역으로 상담에서 다루어져왔으며, 특히 청년기의 대학생들이 상담에서 호소하는 문제 중 연애관계 문제는 대인관계문제와 함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유지현, 송소원, 안연주, 2008).

청년기 연애관계의 만족도는 다양한 관계적 및 개인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계적 변인들은 연애관계 대상의 특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상과 현재의 차이(이경성, 한덕웅, 2005), 성격의 유사성(이경성, 2004; Simpson, 1987), 의사소통시 나타나는 특성(조은정, 이기학, 2002) 등이 연애관계 만족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개인적 변인들은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내적 특징들로, 애착 유형(김광은, 이위갑,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조현주, 1997; Fraley & Davis, 1997), 동기(곽소영, 손은정, 2008; Bahr, 1989; Knee, Lonsbary, Canevello, & Patrick, 2005), 성격적 요인(Shaver & Brennan, 1992), 귀인성향(유소영, 20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만성화되고 심각한 관계만족의 문제는 성격적 요인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역기능적

대인관계 양상의 기저에 병리적인 성격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대상관계이론에서 제기되어 왔다(Clarkin, Yeomans, Kernberg, 2006). 다양한 병리적 성격적 특성 중 특히 자기애적 성격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하고 만족도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Morf(1994)는 자기애 성향자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자기 과장적인 행동을 사용하고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애적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배우자를 평가절하 함으로서 실추된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은정, 2007).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할 때, 관계만족도 저하와 관련되는 병리적 성격요인으로서의 자기애적 성격특성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매개로 하여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지 그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상담장면에서 관계문제를 정확히 개념화하고 효과적 개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자기애(narcissism)란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 성향으로(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적 성격자들은 거만하고, 과장되게 자신을 중요하게 평가하거나, 성공과 권력에 대한 판타지에 몰두하고, 자신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나, 타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질투를 느끼며, 착취적인 대인관계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McCullough, Emmons, Kilpatrick, & Mooney, 2003).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보면, 자기애가 높은 개인들은

더 공격적이고(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Stucke & Sporer, 2002), 타인에 대해 지배적이며(박정민, 1998), 분노감과 신체적·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Rhodewalt & Morf, 1995).

이러한 자기에적 특성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자기를 총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런 감정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Kaufman, 1989), 이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가 바로 자기에라는 것이다(Nathanson, 1987).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되었다(이인숙, 최해림, 2005; Gramzow & Tangney, 1992; Hibbard, 1992).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초한 자기에 성향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성을 수반하는 현상의 기저에는 자기에 성향으로 인해 편향된 귀인과정(Attribution)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귀인(attribution)은 Heider(1958)가 체계화하여 발달시킨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현상의 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특히 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인과귀인과 책임귀인을 구분하여 접근한다. 인과귀인이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반면, 책임귀인은 사건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radbury & Fincham, 1990). 인과귀인에는 통제소재, 보편성, 안정성의 요소가 평가에 포함

되나, 책임귀인은 상대방의 행동 의도(intent), 이기적인 동기(selfish motivation), 비난성(blameworthy)을 평가하는 인지적 평가체제로 구성된다. 즉, 책임귀인은 표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비교 및 평가하고, 비난 혹은 칭찬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점이 인과귀인과 구분된다(Fincham, Beach, & Nelson, 1987). 이와 같이 인과귀인이 단순히 원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책임귀인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책임귀인은 관계적 맥락에서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이경성, 한덕웅, 2000; Fincham & Bradbury, 1991).

지금까지의 자기에 성향과 귀인 편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게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 보호적 귀인 편향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먼저 자기에 성향과 인과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성향자들은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내부 귀인을 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된 외부 귀인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 이러한 귀인 편향은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자존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하거나(Greenwald, 1980), 자신이 가진 인지구조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한 것(Taylor & Riess, 1989)이라고 설명된다. 물론 이러한 이기적 편향은 일반인에게서도 관찰되지만, 특히 자기에 성향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mmons, 1987; John & Robins, 1994).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 성향의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 경향성은 관계맥락에서는 상대방의 행동 의도와 동기를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책임귀인성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해 더 많은 비난과 높은 수준의 분노 경험 및 표출을 보였으며(서수균, 2007), 특히 이러한 성향은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ukushima, Iwasaki, Aoki & Kikuchi, 2006). 즉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과대지각된 자기개념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더 쉽게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고 분노를 경험한다는 것이다(Tomaes & Bushman, 2008).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 성향과 책임귀인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책임귀인이 자기에 성향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기에 성향과 관계만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책임귀인이 관계 만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가 책임귀인을 할수록, 즉 결혼 문제에 대해 상대방을 더 비난할수록 결혼 만족도는 감소하며, 부부 불화 및 결혼생활 어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cham & Bradbury, 1992; Madden & Janoff-Bulman, 1981). 부정적 책임귀인은 부부의 문제해결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부부가 더 높은 수준의 책임귀인을 보일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중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비난, 자기 책임의 부정, 비협조적 태도 등의 효과적이지 못한 문제해결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Bradbury, Beach, Fincham, & Nelson, 1996; Miller & Bradbury, 1995). 또한 책임귀인성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변화하는 유동적인 요인으로, 책임귀인성향의

변화에 따라 결혼 만족도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rney & Bradbury, 2000). 부정적 책임귀인이 관계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부부관계 이외에 연애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책임귀인양식에서 부정적 귀인의 정도가 클수록 연애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유소영, 2000), 부정적 귀인이 문제해결이나 대화를 피해버리고 화 혹은 싸움을 내는 부정적인 대처행동을 매개로 하거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애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지현, 2006).

요약하면, 기존 연구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 성향은 편향된 책임귀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책임귀인은 관계 만족의 주요 예측 변인이라는 두가지 독립적인 결과들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들을 함께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와 관계 만족이 관련될 것이며, 이 관계는 책임귀인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지지된 수치심과 자기에의 관계, 책임귀인과 연애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장하여,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가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연애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관계만족도의 문제에 기여하는 성격적 특성과 그 인지적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상담 장면에서 관계만족도의 문제 개념화 및 개입계획 발달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0부를 수거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 4부와 연애편계가 없다고 보고한 28명을 제외하고 총 138명의 자료만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연애편계가 없는 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하는 이유는 본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연애편계가 없는 응답자의 자료는 그 타당도가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2.5세($SD = 2.64$)였으며, 남학생 47명(34.6%), 여학생 89명(65.4%)이었다. 학년은 1학년 19명(14.0%), 2학년 18명(13.2%), 3학년 38명(27.9%), 4학년 61명(44.8%)이었다. 응답자 중 현재 연애편계 중인 사람은 75명(55.1%)이었으며, 현재는 연애편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연애편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61명(44.9%)이었다. 현재 연애편계를 하는 사람 중 애인과 교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22명(16%), 6개월 1년 미만인 사람이 22명(16%),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29명(21%), 3년 이상이 2명(1.4%)였다. 전체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6개 문항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질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와 ISS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체 척도는 0점(그런 경우가 없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합계 점수는 0점에서 96점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며, Cook(1987)은 50점 이상의 점수는 고통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심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인숙 등(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ISS의 하위요인은 부적절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원척도 개발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5였으며, 이인숙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부적절감 .89, 공허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76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질문지(**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III-R(APA, 1987)의 성격장애에 대한 한국 임상가들의 전형성 평정자료를 분석하여 구인타당화 방식으로 제작한 척도이다.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 성격장애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4점 척도로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1999)이 사용한 7점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비록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설문지가 현재의 DSM-IV-TR 이전의 DSM-III-R의 성격장애 기준에 기초하고 있으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자기애를 측정하기에 유용하다고 보고되어 왔으며(한수정, 1999), DSM-IV-TR 기준 적용 이후의 자기애

연구들에서도 타당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백승혜, 2008;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책임귀인 질문지(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RAM)

책임귀인은 Fincham과 Bradbury(1992)와 안수진(1997)에 의해 사용된 관계귀인질문지(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RA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M 원칙도는 친밀한 관계의 귀인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던 역동귀인 척도(The Dynamic Attribution Inventory; DAI; Bascon, Sayers, & Duce, 1989)와 부부 귀인양식 질문지(Marital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MASQ; Fincham, Beach & Nelson, 1987)를 Fincham과 Bradbury(1992)가 수정 보완한 것이며, 인과귀인 3차원과 책임귀인 3차원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안수진(1997)은 이들 중 책임귀인양식만을 뽑아 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긍정적인 사건 2개, 부정적인 사건 8개를 포함하여 총 10문항에 대해 책임귀인의 의도성, 이기적인 동기, 비난성을 6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세 차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전체 귀인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수진(1997)이 사용한 10문항 중 교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한 문항을 제외시키고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사건 2개의 비난성 차원은 역으로 채점하며, 총점이 클수록 연애관계 상대방의 행동을 더 의도적이고 이기적이며 비난받을 만하다고 부적응적인 귀인을 하는 것이다. Fincham 등(1992)의 척도개발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편이 .84, 아내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연애관계 만족도

연애관계 만족도는 이경성과 한덕웅(2003)의 결혼만족검사의 개발을 위한 논문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결혼 전 연애 관계에 적합하도록 이경성(2004)이 변환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의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관계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경성(2004)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역시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수업 중 강사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책임귀인 척도, 연애관계 만족도 척도, 기본적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들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이 응답한 설문지는 추후 연구자에 의해 수거되었다.

자료분석

SPSS 17.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증은 AMOS 16.0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도 고려하였는데,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NFI(Bentler-Bonett 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NFI, CFI의 경우 값이 .95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6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는지도 검증하였는데,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반된 경우, 최대 우도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살펴본 결과, 자료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크기가 분석에 적합함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G*Power 3.1을 사용하여 검증력 분석

도 실시되었다. G*Power 3.1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 프로그램으로 통계검증에서 검증력의 크기나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Faul et al., 2007). 그 결과 본 연구의 표본 138명은 효과크기(Effect size) 0.3, 일종오류(alpha) 0.05에서 검증력이 0.85로 나타났다. 이것은 Cohen(1988)이 주장한 검증력의 기준인 0.8보다 높은 것으로 이 연구의 표본수가 검증력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 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 과

주요 분석에 연구 변인들간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변인들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로에 있어서도 성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책임귀인, 관계만족의 변인들 모두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다.

표 2에 모형검증에 사용된 각 변수 간의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애($r = .32, p < .01$)와 책

표 1. 남녀에 따른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책임귀인, 관계만족 평균 및 표준편차 차이검증

	남자		여자		F
	n	M (SD)	n	M (SD)	
내면화된수치심	47	25.23 (15.46)	89	22.45 (14.21)	1.10
자기애	47	87.76 (11.89)	89	87.68 (12.90)	0.01
책임귀인	47	73.59 (18.47)	89	78.12 (19.08)	1.78
관계만족	47	37.59 (8.00)	89	36.06 (10.00)	0.83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1. 내면화된 수치심				
2. 자기에	.32**			
3. 책임귀인	.19*	.27**		
4. 관계만족	-.10	-.08	-.20*	
M	23.40	87.54	76.74	36.72
SD	14.71	12.60	19.06	9.31

* $p < .05$, ** $p < .01$

임귀인($r = .19, p < .05$)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에와 책임귀인($r = .27, p < .01$)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관계 만족은 책임귀인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20, p < .05$)를 나타내었으며, 수치심 및 자기에와는 그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로모형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에 성향, 책임귀인, 관계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하였던 경로 모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에에 영향을 주고 자기에가 책임귀인을 매개로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가 있어야 하며,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감소해야 하는 4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하지만 매개효과를 증명함에 있

어서 첫 번째 단계가 유의하지 않아도 상쇄효과와 억압변인과정(suppressor variable processes), 그리고 예언변인과 결과변인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지(distal) 또는 근접(proximal)한지 등에 따라서 Baron과 Kenny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Shrout와 Bolger(2002)는 두 변인간의 이론적인 설명이 존재하고 두 변인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distal)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직접적인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가 있으면 매개분석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기에라는 성격적인 변인은 연애만족과 형성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인간의 상관이 표 2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더라도 자기에가 책임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 책임귀인과 연애만족도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된 경로 모형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에는 책임귀인에, 책임귀인이 관계 만족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여, 적합한 모형을 나타내었다; $\chi^2 = 1.942 (df = 3) p = .59$, TLI = .1085, NFI = .937, CFI = 1.000, RMSEA = .000(표 3).

기본모형에서 가정한 세 경로들의 경로계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에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31, p < .001$)는 적절하였고, 자기에가 책임귀인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26, p < .001$)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책임귀인이 관계 만족으로 가는 경로($\beta = -.20, p < .01$)도 적절하였다. 모형은

표 3.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책임귀인, 연애관계 만족의 경로모형 적합도

χ^2	df	TLI	NFI	CFI	RMSEA (90% 신뢰구간)
1.942	3	1.085	.937	1.000	.000(.000-.122)

표 4.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경로계수 및 표준화계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애	.27***	.31	.07	3.86
자기애 →		책임귀인	.39***	.26	.13	3.01
책임귀인 →		관계만족	-.10**	-.20	.04	-2.25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애 →	책임귀인	.10*	.08	.05	2.12
자기애 →	책임귀인 →	관계만족	-.04*	-.05	.02	-2.00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애 → 책임귀인 →	관계만족	-.01	-.02	.01	-1.4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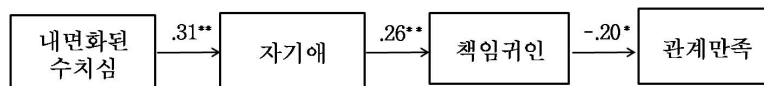


그림 1. 경로모형

* $p < .01$, ** $p < .05$, , *** $p < .001$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Kline(1998)에 따르면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 사이이면 중간효과, .50 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경로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직접경로로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에 중간 정도의 영향(.31)을 미치고 있고, 자기애도 책임귀인에 중간 정도의 영향(.26), 책임귀인 또한 관계 만족에 중간 정도의 영향(-.20)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경로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책임귀인에 .08, 정도의 간접효과를 미쳤고, 자기애가 관

계만족에 -.05의 간접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작은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와 책임귀인을 거쳐 관계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연애관계 만족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애 성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성향, 책임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관계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 경로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자들의 가설과 같이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애가 책임귀인을 매개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수준의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애 성향과 저하된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가 책임귀인을 통해 매개된다는 결과는 자기애 성향에서 관찰되는 귀인의 이기적 편향(Farwell & Wohlwend-Lloyd, 1998; Hartouni, 1992; Rhodewalt & Morf, 1995)이 연애관계라는 맥락에서도 역시 작용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애 성향이 높은 개인들의 경우, 관계적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행동 의도와 동기를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연애 관계에서의 만족도 역시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와 책임귀인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개인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성격적 성향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지만(송수민, 2008)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타인을 비난하는 귀인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애와 관계 만족간 관계에 있어서,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는 유의미하였던 반면, 둘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애가 역기능적 대인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들이나(오홍석, 2007; Ogrodniczuk, Piper, Joyce, Steinberg, & Duggal, 2009) 자기애가 접근·회피 동기를 부분 매개하여 타인의식

적 관계양식을 나타나게 한다는 연구결과(홍정연, 2009)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애관계라는 특정 관계 맥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애관계에서는 일반 대인관계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심과 친밀감은 자기애적 특성을 위협하지 않는 관계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관계 만족이 저하될 가능성은 감소시키는 반면, 자기애 성향이 책임귀인은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만 관계 만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책임귀인은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책임귀인을 매개로 한 자기애의 관계 만족에 대한 간접 효과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책임귀인이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관계 강도는 상대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관계 강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수진, 1997; 유소영, 2000; Fincham & Bradbury, 1987; Fincham & Bradbury, 1992; Fincham, Bradbury, Arias, Byrne, & Karney, 1997).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데 반해, 본 연구는 미혼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몰입(commitment)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고 그 때문에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미혼 커플의 경우 보다 쉽게 관계를 정리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만을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귀인과 관계 만족 간의 상관의 크기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몰입(commitment) 수준이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수가 138명으로 크지 않고 서울 소재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미혼 커플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한 또 다른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할 만큼 조사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연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응답자 모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도 분석에 포함됨으로써,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인지적 평가가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nyder & Uranowitz, 197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의 연애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과거 경험에 대한 지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지각이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성향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최근 자기에 성향을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로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구분이 지지되고 있어, 유사한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두 유형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는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에의 하위 유형

에 따라 책임귀인과 관계 만족 및 그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기능적인 연애와 자기에 성향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에 의한 설문지를 통해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고 이렇게 측정된 변인들은 자기보고에 편향이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부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애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 면담등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횡단적 상관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적 제한점들이 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상관 연구로, 독립변인의 조작이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규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에 성향, 책임귀인 및 관계 만족 간 관계의 방향성은 이론적,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그 결과의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에 성향과 관계 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귀인의 의미 있는 매개변인일 수 있다는 결과는 자기에 성향의 특성으로 연애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관계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책임귀인이 이러한 개입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책임귀인에 대한 인지적 수정을 통해 자기에 성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도 자기에 성향이 관계만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수치심이 자기에를 매개로 책임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부부를 비롯한 커플 상담에서,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할 때 그 이면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음을 이해하고 개입 또한 내담자의 훼손된 자아상에 대한 공감반응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 성향이 일반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연구의 틀을 연애관계로까지 확장시키고, 관련된 인지적 기제를 탐색하였다.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에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병리적 성격특성이 관계 문제의 기저에 존재한다는 이론적 주장에 대한 부분적인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매개하는 기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일견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에적 특성의 다양한 유형 및 관련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자기에적 특성과 관계만족도간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상담 장면에서 관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정, 장성숙 (2007). 자기에와 내현적 대인 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13-932.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8.
- 김민희, 민경환 (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 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정민 (1998). 비행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송수민 (2008).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 책임귀인 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홍석 (2007).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유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 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현, 송소원, 안연주 (2008). 200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22, 1-56.
- 이경성 (2004).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31-150.
- 이경성, 한덕웅 (2000).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13-137.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만족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4-295.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의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651-670.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조은정, 이기학 (2002). 이성교제 관계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감정적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7-413.
- 조현주 (1997). 성인 애착 유형이 부부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연구, 5(1), 39-45.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 홍정연 (2009).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의 접근·회피 동기와 대인관계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hr, S. J. (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adbury, T. N., & Fincham, D. F.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adbury, T. N., Beach, S. R. H., Fincham, F. D., & Nelson, G. M.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69-576.
- Capaldi, D. M. & Crosby, L. (1997). Observed and report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young, at-risk couples. *Social development*, 6, 184-206.

- Clarkin, J. F., Yeomans, F., & Kernberg, O. F. (2006). *Psychotherapy of borderline personality: Focusing on object relations*.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 64-83.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9, 175-191.
- Fincham, E. D., & Bradbury, T. N. (1987). The impact of attributions in marriag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81-489.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1). Cognition in marriage: A program of research on attribution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2, 159-203.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2). Assessing attributions in marriage: The 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7-468.
- Fincham, F. D., Beach, S., & Nelson, G. (1987). Attribution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3. causal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s for spous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71-86.
- Fincham, F. D., Bradbury, T. N., Arias, I., Byrne, C. A., & Karney, B. R. (1997). Marital Violence, Marital Distress, and Attribu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367-372.
- Fincham, F. D., Beach, S. R. H., Harold, G.D., & Osborne, L. N.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8, 351-357.
- Fraley, R., & Davis, K. (1997).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in young adults' close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131-144.
- Fukushima, O., Iwasaki, K., Aoki, S., & Kikuchi, J. (2006). Parents' narcissism and aggression against children: When parents attribute misfortune to their child. *Japane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11.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469-376.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an Ego.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artouni, Z. S. (1992).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organization on causal attributions. *Psychological Reports*, 71, 1339-1346.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Jacob, T. & Krahn, G. L. (1998). Marital Interactions of Alcoholic Couples: Comparison With Dep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73-79.
- Karney, B. R., & Bradbury, T. N. (2000). Attributions in marriage: state or trait?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95-309.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nee, C., Lonsbary, C., Canevello, A., & Patrick, H. (2005). Self-determination and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997-1009.
- Madden, M. E., & Janoff-Bulman, R. (1981).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Wive's Attributions for Conflic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663-674.
- McCullough, M. E., Emmons, R. A., Kilpatrick, S. D., & Mooney, C. N. (2003). Narcissists as "Victims": The Role of Narcissism in the Perception of Transgr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885-893.
- Miller, G. E., & Bradbury, T. N. (1995). Ref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196-208.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88-676.
- Nathanson, D. L. (1987).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Ogrodniczuk, J. S., Piper, W. E., Joyce, A. S., Steinberg, P. I., & Duggal, S. (2009). Interpersonal problems associated with narcissism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 837-842.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Shaver, P., & Brennan, K.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536-54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mon, R. W., & Marcussen, K. (1999). Marital transitions, marital belief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11-125.
- Simpson, J. 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Snyder, M., & Uranowitz, S. W. (1978). Reconstructing the past: Some cognitive consequences of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41-950.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09-532.
- Taylor, J., & Riess, M. (1989). "Self-Serving" Attributions to Valenced Causal Factors: A Field Experi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337-348.
- Tomaes, S., & Bushman, B. J. (2008). Trumping Shame by Blasts of Noise: Narcissism, Self-Esteem, Shame,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9, 1792-1801.
- Weiss, R. L., & Heyman, R. E. (1997). A clinical-research overview of couples interactions. In W. K. Halford & H. J. Markman (Eds.), *Clinical handbook of marriage and couples intervention*. New York: John Wiley.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Wickrama, K. A. S., Lorenz, F. O., Conger, R. D., & Elder, G. H. Jr. (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143-155.

원 고 접 수 일 : 2009. 9. 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2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21

**The Role of Shame-based Narcissistic Trait on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Mediation Effect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Sung Bum Woo Mi Na Chong Nag Yoon Sung Chong Myung Kang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shame, narcissistic trait,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in predicting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we proposed a path model in which responsibility attribution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me-based narcissistic trai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138 young adults who were engaging in a romantic relationship or had experience of the past romantic relationships. They completed a survey packet including measures of shame, narcissistic trait,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sults supported the proposed path model, suggesting that shame-based narcissistic trait may have indirect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which is mediated by a cognitive mechanism such as responsibility attribu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hame, narcissistic trait, responsibility attribu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